지자체별 도시공원 규모분석*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ity Park Facility for the Korean Local Government*

이 국 용
군산대학교

Lee Kook-Yong
Kunsan National Univ.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시 · 도)별 문화시설중 도시공원에 대한 규모를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소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으로 구분하여 인구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의 규모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의 문화시설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공원의 유형과 면적이 인구증가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도시공원 면적 확보율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향후 도시공원 정책 수립에 있어 인구증가율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Ⅰ. 서론

오늘날 도시공원, 녹지, 공원녹지 등 관련 분야 정책수립 및 지방교부금 교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도시적 정주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 · 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녹지 등 도시 · 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 그러나, 도시공원의 경우 결정면적(934㎢) 대비 조성면적(418㎢)이 44.8%에 머무르고 있고, 1인당 도시공원 면적(8.8㎡)도 선진외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 도시공원 규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평균 인구증가율과 연평균 공원면적 증가율의 비교분석을 통해 실제로 지자체별 도시공원의 규모를 파악함과 동시에 각 지자체들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 · 군계획시설을 의미한다. 이때 도시공원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녹지는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으로 구분되어진다[2].

Ⅲ. 자료 분석 및 결과

1. 지자체별 도시공원 현황

광역지자체별로 도시공원 규모 증가율 분석해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먼저 인구증가율의 경우 세종시(2012년 기준)의 경우 가장 높은 6.43% 연평균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기 1.59%, 인천 1.19%, 제주 1.14%, 울산 0.76% 등의 순이었으나, 공원면적 증가율의 경우 서울이 가장 높은 2.97%, 세종 2.21%, 광주 1.54%, 부산 1.38%, 전북 0.21%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공원 증가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책적 결정, 도시계획 등 상이한 요인에 의한 도시공원 면적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을 살펴본 결과(표2 참조), 가장 높은 공원면적을 보이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세종시(2015년 기준 104.64㎡이었으며,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지자체의 경우 2005년에는 충북 63.97㎡이었으나 2015년에는 전남 32.82㎡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광역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이 적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주목해야할 부분은 2005년에 비해 2015년 인구 1인당 공원면적이 증가한 광역지자체와 상대적으로 줄어든 광역지자체라는 점이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4A01036638).

표 1. 광역지자체별 도시공원 규모 분석 결과 (2005년-2015년)

지역	인구		공원면적	
	증가율	순위	증가율	순위
서울	-0.14%	15	2.97%	1
부산	-0.35%	17	1.38%	4
대구	-0.09%	14	-10.67%	17
인천	1.19%	3	-2.18%	10
광주	0.49%	9	1.54%	3
대전	0.43%	10	-6.79%	14
울산	0.76%	5	-5.22%	13
세종	6.43%	1	2.21%	2
경기	1.59%	2	-0.40%	7
강원	0.24%	11	-1.24%	9
충북	0.62%	7	-10.57%	16
충남	0.57%	8	-3.51%	11
전북	-0.08%	13	0.21%	5
전남	-0.30%	16	-1.01%	8
경북	0.05%	12	0.05%	6
경남	0.63%	6	-4.38%	12
제주	1.14%	4	-7.02%	15
합계	0.55%		-1.94%	

2005년의 경우 충북, 경남, 전남 등이 상위권에 위치하였으나, 2015년의 경우 경북이 11위 → 5위, 전북 12위 → 4위 등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1인당 공원면적 증가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울산시의 경우 2005년과 2015년 모두 3위로서 도시계획을 통한 공원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2005년 57.56㎡ → 2015년 31.22㎡)에도 불구하고 타 광역시에 비해 도시공원 관련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국 평균의 경우 2005년 23.29㎡에서 18.13㎡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광역지자체 면적별 공원면적을 비교해본 결과, 2005년 17.20%, 2015년 23.04%로 서울이 가장 높은 면적대비 공원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 8.20%(2015년), 전남 5.20%(2015년 기준)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2. 광역지자체별 인구 1인당 공원면적 분석 결과 (2005년-2015년)

지역 (단위:㎡)	2005년		2015년	
	공원면적	순위	공원면적	순위
서울	10.24	17	13.92	14
부산	15.06	15	17.88	10
대구	30.48	8	9.96	17
인천	22.70	13	16.18	12
광주	12.60	16	13.97	13
대전	34.38	6	16.29	11
울산	57.56	3	31.22	3
세종	182.71	1	104.64	1
경기	16.57	14	13.61	15
강원	28.39	10	24.48	7
충북	63.97	2	19.68	8
충남	29.28	9	19.35	9
전북	25.86	12	26.63	4
전남	35.27	5	32.82	2
경북	26.19	11	26.18	5
경남	41.92	4	25.15	6
제주	30.83	7	13.30	16
합계	23.29		18.13	

그러나 2005년 상위권에 위치하였던 대구(2005년 3위, 8.66% → 2015년 9위 2.80%)의 경우 가장 큰 하락을 보였으며, 대전 역시 2005년 9.26%에서 2015년 4.58%로 약 절반정도 공원면적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아무래도 광역지자체의 정책상 공원면적을 줄이고 도시 등으로 개발함으로 인해 공원면적이 줄어든 결과로 판단된다.

표 3. 광역지자체별 면적당 공원면적분석 결과(2005년-2015년)

지역		공원면적(㎢)		공원면적비율	
	면적(㎢)	2005년	2015년	2005년	2015년
서울	605.21	104.07	139.46	17.20%	23.04%
부산	765.82	54.79	62.82	7.15%	8.20%
대구	883.48	76.55	24.77	8.66%	2.80%
인천	1010.35	59.02	47.35	5.84%	4.69%
광주	501.18	17.66	20.57	3.52%	4.11%
대전	539.84	50.01	24.75	9.26%	4.58%
울산	1056.1	62.61	36.64	5.93%	3.47%
세종	464.9	20.67	20.07	4.45%	4.75%
경기	10172.4	177.30	170.37	1.74%	1.67%
강원	16873.51	42.96	37.93	0.25%	0.22%
충북	7433.01	95.23	31.18	1.28%	0.42%
충남	8203.89	57.47	40.21	0.70%	0.49%
전북	8066.48	48.76	49.79	0.60%	0.62%
전남	1203.92	69.38	62.66	5.76%	5.20%
경북	19028.98	70.40	70.76	0.37%	0.37%
경남	10537.97	132.48	84.61	1.26%	0.80%
제주	1849.02	17.19	8.30	0.93%	0.45%
합계	89196.06	11358.99	934.24	1.27%	1.05%

Ⅳ. 결론

17개 광역지자체로 도시공원 규모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인구증가율, 면적 등에 기초하여 2005년대비 2015년의 증가율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공원면적이 줄어들거나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 지난 10년동안의 도시화를 통해 공원면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추후 기초지자체 단위로 분석단위를 더욱 세분화하여 인구증가, 면적,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도시공원의 규모와 형태, 1인당 면적 등의 변화추세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존 지자체 스스로의 도시공원 조성보다는 도시계획에 따른 민간공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원 및 녹지조성 비율을 확보하려는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1] 배민기, 김유리, “도시공원 서비스의 형평성 평가를 고려한 도시공원 확충방안 : 충북 청주시를 대상으로”, 국토연구, 제 77권, 46-66, 2013.
[2]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